

《穀梁傳》故事 初探*

朴晟鎮**

◁목 차▷

- I. 緒論
 - II. 《穀梁傳》故事의 역할 분석
 - III. 故事의 歸屬 문제 검토
 - IV. 結語
-

I. 緒論

필자는 春秋三傳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여 왔다. 본고는 그 일환으로 《穀梁傳》의 故事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左傳》, 《公羊傳》 및 기타 漢代 문헌을 필요에 따라 비교하며 논술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면 한국은 《穀梁傳》이 대중적이지 않은 까닭도 있거니와 經書로만 인식되어 중문학 및 한문학계를 막론하고 그 문장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대륙과 대만에서도 《穀梁傳》의 연구는 철학사상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문학적 접근은 많지 않다.¹⁾ 본고에서는 故事 분석을 통하여 단순한 감상이나 품평을 넘어 《穀梁傳》의 성립과정, 학파의 전승관계 및 그 정신세계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본론에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내학술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중문과 부교수

1) 譚家健 〈穀梁傳敘事比論〉, 《文史哲》2012, 4기) 楊德春 〈論春秋穀梁傳的文學剪裁〉, 《河北北方學院學報》, 2011, 27권 5기), 黃堯坤 〈論穀梁文〉, 《北京師範大學學報》, 1987, 2기) 위 세 편이 《穀梁傳》의 문학성을 다룬 논문이다. 학위논문으로는 簡逸光, 《公羊傳穀梁傳比較研究》(臺灣 佛光大學博士論文, 2008)의 6장에서 《穀梁傳》의 문학성을 다루고 있다. 專著로는 유일하게 郭預衡, 《中國散文史(上)》(上海古籍出版社, 1993)의 174-175쪽에 간단한 언급이 있다.

앞서 우선 《穀梁傳》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필자의 소략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²⁾ 현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견은 楊伯峻이 제시한 것으로 《穀梁傳》은 《公羊傳》을 채택, 수식, 윤색, 초습하였고, 《公羊傳》이 작성된 후에 세상에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³⁾ 金德建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그는 《穀梁傳》이 《公羊傳》보다 늦게 나왔다는 통설을 반박하며 한무제 시기에 《穀梁傳》이 존재했다고 결론 내린다.⁴⁾ 穀梁자가 《穀梁傳》을 저술했다는 기록을 회의하더라도 《穀梁傳》의 저술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기록에 남아 있다. 《史記·儒林傳》의 “하구강 선생이 穀梁春秋를 지었다(瑕丘江生爲穀梁春秋)”라는 기록 외에도 중시해야 되는 것이 또 있다. 陸賈의 《新語》에서는 “《穀梁傳》曰: ‘仁者以治親, 義者以利尊. 萬世不亂, 仁義之所治也’”를 인용하며 《新語》의 제1편인 《道基》의 결론으로 삼았다.⁵⁾

2) 필자는 이미 《穀梁傳》의 성립시기에 대해 졸전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견해는 부족한 바가 있고 새 자료도 입수하였기에 본고에서 보충하고자 한다. 당시 필자의 결론 일부를 소개한다. “필자가 추론하던대 《穀梁傳》原 텍스트에 《公羊傳》학에 대한 분석이 첨가되어 지금 우리가 보는 《穀梁傳》 텍스트가 완성된 것이다. 이것은 武帝시기부터 兩者가 상호 논쟁을 통해 대립했다는 기록에서도 반증된다. 같은 학설이라면 대립과 논쟁이 가능할리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穀梁傳》가들이 의거하던 텍스트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 텍스트에 추가된 부분을 합쳐 지금의 판본이 완성되었다는 필자의 추론은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줄고, 〈穀梁傳과 公羊傳의 관계 재론〉, 《中國語文論譯叢刊》第24輯, 2009년 1월, 69-89쪽 참조.

3) 楊伯峻은 《經書淺談》第三節《穀梁傳》出於《公羊傳》後에서 세 가지 證例를 들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穀梁傳》似乎采擇《公羊傳》而加以修飾潤色罷了. 2. 明明是抄襲《公羊傳》, 只是文字簡省而已. 3. 這是採用《公羊傳》的“君存焉爾”的理由而變其詞. 上面的幾條證據, 足以證明《穀梁傳》系在看到《公羊傳》後才寫定的. 《經書淺談》中華書局 1984, 93쪽

4) 金德建, 〈瑕丘江公作《穀梁傳》的推測〉(陝西省社會科學院, 1957年3期) 30-34쪽. 원문摘要是 다음과 같다. 《穀梁傳》原是一部晚出於漢時候的書, 幾乎已經成爲一種公認的意見了. 可是如果進一步地追問起來《穀梁傳》出於漢代人所著作的理由在那裏, 有什麼凭證呢? 實在嚴格地說都不過認爲好象應當作如此主張而已, 一直到現在還缺少有任何充分的理由或根據提出來. 其實, 這項可以用來做證明的材料, 現在我們可能設法找得到的. 試看《史記·儒林傳》裏便是這樣地說起過: 瑕丘江生爲《穀梁春秋》. 我們對這句話的本身很簡單容易明了, “爲”字應該就是“作”字的意思解釋, 所謂《穀梁春秋》自然就是《穀梁傳》了, 明白地說出《穀梁傳》這部書是出於當初瑕丘江公(《史記》作“生”字, 《漢書》和其它各種的書都稱“公”)所作, 應當不致於會有什麼疑義.

5) 생졸년은 대략 前240-前170으로 《史記·酈生陸賈列傳》에 漢 高祖와 文帝 시대 활동한 것으로 나온다.

《道基》는 《新語》 전체 논리의 구심점이므로 陸賈의 사상은 《春秋穀梁傳》에서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道基》에서 인용하고 있는 《穀梁傳》의 문장은 今本 《穀梁傳》에는 없다. 필자는 이것이 바로 지금은 사라진 古本이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陸賈가 經傳을 날조하고, 게다가 그것을 인용하여 자기 저술의 초석으로 삼았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자의 頰谷之會는 儒家에게 그 의미가 매우 큰 故事인데 陸賈의 《新語》에 채록된 것은 《穀梁傳》의 기록과만 부합한다.⁶⁾ 또 後漢 초기 桓譚의 《新論》에 穀梁赤이 《穀梁傳》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⁷⁾ 穀梁赤이라는 작자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본 텍스트의 상태가 ‘殘略’하고 ‘多所遺失’하다고 했다. 이것은 桓譚이 목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증언으로, 당시 古本과 今本の 두 종류 《穀梁傳》이 존재했다는 반증이다. 추측컨대 陸賈가 인용하고 桓譚이 목도한 것이 아마 《春秋穀梁傳》제 1차 판본에 속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現행본 《穀梁傳》이전에 古本이 존재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단편적 자료에 근거해 《穀梁傳》은 《公羊傳》의 뒤에 출현했다고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본다.⁸⁾

II. 《穀梁傳》故事의 역할 분석

역대 문인들의 《穀梁傳》 문장에 대한 평가나 평어는 많은 편이 아니다. 아마도 《左傳》의 압도적 우세에 밀려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評點家들이 활약한 明清시기의 평어들은 傳本이 희소하여 열독의 가능성도 적고 또한 부분적인 단락이나 故事에 대한 인상을 간결하게 적은 것이 대부분이다.⁹⁾ 民國이후 대

6) 余嘉錫, 《四庫提要辨證》: “《辨惑篇》引魯定公與齊侯會於頰谷事, 與《春秋穀梁傳》略同, 而其詞加詳. 《公羊》既無其事, 《左傳》所載復不同, 知其用《穀梁》義也

7) 桓譚, 《新論》: “《左氏傳》遭戰國寢藏, 後百餘年, 魯人穀梁赤作《春秋》(即《春秋穀梁傳》), 殘略, 多有遺文. 又有齊人公羊高緣經文作傳, 彌失本事.”

8) 今本の 성립시기에 대한 필자의 추론은 《穀梁傳》 莊公 24년 “夏, 公如齊逆女, 親迎, 恒事也.”에 恒, 즉 漢 文帝의 諱가 나오는 것으로 그 시기를 즈음해 現행 텍스트의 대략을 갖춘 것으로 본다. 물론 부분적 침삭은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先秦兩漢 문헌의 傳承에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다.

9) 譚家健의 상계문 각주3)과 簡逸光 박사논문 제6장 참조.

륙과 대만의 대표적 문학사가인 葉慶炳과 劉大杰은 그들의 문학사에서 《穀梁傳》을 언급하지 않았다. 현대학자인 郭預衡의 《중국산문사》에 두 쪽에 소개된 것이 아마 유일한 지면이 아닌가 싶다. 근자에 새로 나온 연구 성과들을 모두 열람하지 못해 단언키 어렵지만 아마 크게 지면을 할애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穀梁傳》의 문장에 대한 평가로 주요하게 인용되는 것을 적록하면 다음과 같다. “左氏豔而富, 其失也巫. 穀梁清而婉, 其失也短. 公羊辯而裁, 其失也俗.” 이것은 范寧이 한 말인데 《穀梁傳》은 “清而婉”한 문장이 장점이고 편폭이 짧은 것이 흠이라는 것이다.¹⁰⁾ 그리고 비교적 유명한 평자로는 柳宗元을 들 수 있다.¹¹⁾ 근자에 중국학자 譚家健과 黃堯坤은 《穀梁傳》 문장의 성취와 예술성에 대해 역대의 평가를 취합하고 분석하였다. 사상 분석 위주의 연구 현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필자는 이들의 성과를 참작하여 또 하나의 각도, 즉 《穀梁傳》 故事의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해 줄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穀梁傳》 故事의 편수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한이 있으므로 필자가 편폭을 고려하여 선별한 세 편을 소개하면서 《穀梁傳》 故事의 일단을 엿보고자 한다.¹²⁾

【故事1】

진 현공이 픽나라를 정벌하려 하자 순식이 말했다. “임금께서는 왜 屈에서 나는 명마와 垂棘의 옥벽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길을 빌리지 않으십니까?” 현공이 말했

10) 清人 翁之圻가 《困學紀聞》注에서 《穀梁傳》은 41512字, 《公羊傳》은 44075字라고 하였다. 참고로 대만중화서국 《春秋左傳今註今譯》에는 左傳이 196845字로 되어 있다. 편폭의 차이로 인하여 故事의 편수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본다.

11) 柳宗元, 《柳河東集》 권34 〈答韋中立論師道書〉: “參之《穀梁》以厲其氣.” 권34 〈報袁君陳秀才避師名書〉: “穀梁子太史公甚峻潔” 이 외에 宋代 胡安國의 《春秋胡氏傳叙》에 “辭辨而義精”. 清代 鐘文蒸의 《穀梁補注論傳》에 “《穀梁》文有二體, 有詳而暢者, 有簡而古者. 要其辭清以淡, 義該以貫, 氣峻以厲, 意婉而平, 徵前典皆據正經, 述古語特多精理” 등을 들 수 있다.

12) 簡逸光의 《穀梁傳解經方法研究》(臺北: 文化大學 석사논문, 2003) 5장에는 短 19개 長 6개의 故事를 소개했다. 譚家健도 25개로 나누어 일치한다. 清 鐘文蒸은 《春秋穀梁經傳補注》 隱公 11년 11월 아래에 27傳(지금 관점에서 故事에 상당)을 골라 敘事라고 칭하고 있다.

다. “이것들은 진나라의 보물이다. 우리의 선물을 받고 길을 빌려 주지 않는다면 어떡하는가?”

순식이 말했다. “이런 물건들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길 때 쓰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길을 빌려 주지 않을 생각이라면 우리의 선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폐백을 받고 우리에게 길을 빌려준다면 이는 나라 안의 창고에서 벽옥을 꺼내 밖의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고, 나라 안의 마구간에서 말을 꺼내 나라 밖의 마구간에 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현공이 말했다. “우나라에는 宮之奇가 있다. 그는 임금에게 우리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순식이 말했다. “궁지기는 사람됨이 마음은 활달하지만 성격이 유약하고 또 어려서부터 임금과 함께 살았습니다. 마음이 활달하면 그 말이 간략하고 성격이 유약하면 강력하게 간하지는 못할 것이며 어려서부터 임금과 함께 자랐으므로 임금이 그의 말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게다가 탐나는 물건은 앞에 있고 후환은 다른 나라 뒤에 숨어 있는 형세입니다. 이는 중간 정도 이상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라야 능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나라 임금을 보건대 중간 이하입니다.”

현공이 결국 길을 빌려 궤나라를 정벌하라고 했다. 우나라의 궁지기가 간언했다. “진나라의 사신은 말이 겸손하고 선물은 후하니 반드시 우나라에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우나라 임금은 듣지 않고 결국 그 선물을 받고 길을 빌려주었다. 궁지기가 또 간언했다. “옛말에 이르기를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이러한 것을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와 아들을 이끌고 조나라로 달아났다. 현공이 궤나라를 멸망시켰다. 5년 후에는 우나라도 빼앗겼다. 순식이 말과 벽옥을 가져다 현공 앞에 두며 말했다. “벽옥은 예전과 똑같은데 말은 조금 늙었습니다.”¹³⁾

위 단락은 우리에게 익숙한 ‘唇亡齒寒’의 故事이다. 특히 故事 마지막 부분은 엄

13) 《穀梁傳》僖公2年: 晉獻公欲伐虢, 荀息曰: “君何不以屈產之乘、垂棘之璧, 而借道乎虞也?” 公曰: “此晉國之寶也. 如受吾幣而不借吾道, 則如之何?” 荀息曰: “此小國之所以事大國. 彼不借吾道, 必不敢受吾幣. 如受吾幣而借吾道, 則是我取之中府, 而藏之外府; 取之中府, 而置之外府也.” 公曰: “宮之奇存焉, 必不使受之也.” 荀息曰: “宮之奇之爲人也, 達心而懦, 又少長於君. 達心則其言略, 懦則不能強諫, 少長於君則君輕之. 且夫玩好在耳目之前, 而患在一國之後, 此中知以上乃能慮之. 臣料虞君, 中知以下也.” 公遂借道而伐虢. 宮之奇諫曰: “晉國之使者, 其辭卑而幣重, 必不便於虞.” 虞公弗聽, 遂受其幣而借之道. 宮之奇又諫曰: “語曰, ‘唇亡則齒寒.’ 其斯之謂與!” 挈其妻子以奔曹. 獻公亡虢. 五年, 而後舉虞. 荀息牽馬操璧而前曰: “璧則猶是也, 而馬齒加長矣.”

숙한 경전에 채용된 것으로 보기에 특이할 정도로 유머가 살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재치있는 문답에 그치지 않고, 강대국의 탐욕과 우리나라의 비극에 대한 강개한 정서가 진하게 묻어난다.¹⁴⁾ 또한 독자들이 저마다의 무한한 소회를 갖도록 하는 여운도 있다. 이 故事는 《國語》, 《左傳》과 《公羊傳》에도 실려 있어 비교도 가능한데 《國語》는 너무 소략하고 《左傳》은 그 설명방식과 등장인물이 상이하고 과정에 초점을 두었기에 본고에서는 일단 제외하고, 《公羊傳》은 《穀梁傳》과 그 서술이 매우 흡사하므로 일부를 비교해 본다. 본래 이 故事의 백미는 진현공의 마지막 말이다. 《公羊傳》의 말미부분은 《穀梁傳》에 훨씬 못 미친다. 아니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 敗筆로 보인다.

4년 뒤에 다시 우리나라를 취했다. 우리나라 임금이 옥과 말을 가지고 왔다. 순식이 그것을 보고 말했다. “저의 계책이 어떻습니까?” 현공이 말했다. “그대의 계책이 실통하기는 하오. 다만 옥은 여전한데 말이 조금 늙었구려.” 이는 순식에게 농담한 것이다.¹⁵⁾

《穀梁傳》과 달리 우리나라 임금이 선물로 받았던 옥과 말을 가지고 오는 장면 묘사는 나름 망국의 비극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첨가된 “이는 순식에게 농담한 것이다”로 문장의 맛은 격감된다. 독자들에게 주는 여운을 잘라내 버린 것이다. 문학적으로 보면 몰상식에 가까운 武斷 행위이다. 물론 이것은 전수자들이 이 故事를 채택하며 단 나름의 평어이다. 즉 公羊學派 師說이 텍스트에 들어간 것인데, 《穀梁傳》에 비교하면 서사의 숙련도가 훨씬 못하다. 각설하고 왜 이 故事가 《穀梁傳》에 들어갔는가. 전체 문장의 배치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편집 의도를 살펴보자. 이 故事는 다음의 經文에 상응하는 것이다.

《春秋》: 僖公 二年 여름, 虞나라 군대와 晉나라 군대가 夏陽을 멸망시켰다.¹⁶⁾

14) 이 문장에 대한 역대의 평가는 譚家健과 黃堯坤의 상계논문 참조.

15) 《公羊傳》 僖公 2년: 四年, 反取虞. 虞公抱寶牽馬而至. 荀息見曰: “臣之謀何如?” 獻公曰: “子之謀, 則已行矣, 寶則吾寶也, 雖然, 吾馬之齒, 亦已長矣.” 蓋戲之也.

16) 經: 僖公 二年, 夏, 虞師晉師滅夏陽.

《穀梁傳》: 하양은 나라가 아닌데, 왜 멸망시켰다고 하는가. 하양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우나라는 군대가 없는데 春秋에 군대라고 쓴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진나라 군대'보다 앞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우나라 군대라고 쓴 것이다. 우나라가 진나라 앞에 기록된 이유는 왜인가. 하양을 멸망시키는데 우나라가 주도적으로 나섰다기 때문이다. 하양땅은 우나라와 궤나라의 변경에 있는 궤나라 요충지이다. 하양을 멸하면 우나라와 궤나라 모두 당한다. 그런데도 우나라가 하양을 멸하는데 주도적 태도를 취한 것은 왜인가.¹⁷⁾ (이후는 상기 순망치한의 故事)

傳에서 經의 기록에 대한 설명의 중점은 우나라가 앞에 거명된 이유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군대가 없는 우나라에 군대가 있는 것처럼 기록한 것 등에 대한 설명이다. 우나라 군대라는 표현은 진나라 군대라는 말이 뒤에 오는데 앞선 우나라를 단지 우라고 기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虞晉師滅夏陽] 이것은 전쟁으로 한 지역을 멸망시킨 것인데, 그런 문장을 서술할 때, 우나라와 진나라 군대라고 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에 부득불 우나라 군대라고 썼다는 것이다. 이른바 春秋筆法의 문제로 본고의 논의와는 거리가 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春秋筆法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故事가 채택된 것이다. 穀梁家들이 보기에 故事로 그 내막을 설명하지 않으면 약소국인 우나라가 이 행위의 주체로 해당 經文의 주어로서 앞에 자리한 이유를 당시 중국인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본다.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분명 僖公 2년에는 夏陽을 멸한 사건뿐인데, 故事 마지막 단락은 5년 뒤의 일까지 포괄해 매듭짓고 있다.¹⁸⁾ 이것은 당해 연 월의 사건에 대해서만 해설하는 《穀梁傳》의 형식을 벗어나 시간을 뛰어넘어 사건의 시말을 함께 기록한 것이다. 이것도 《穀梁傳》에서 이 故事를 세심하게 처리했다는 반증이라 본다.

【故事2】

魯나라의 계손행보는 대머리였고 쯤나라의 극극은 애꾸눈이었으며 衛나라의 손양부는 절름발이였고 曹나라의 공자 수는 곱사등이였다. 네 사람이 동시에 제나라

17) 傳: 非國而曰滅, 重夏陽也. 虞無師, 其曰師何也? 以其先晉, 不可以不言師也. 其先晉何也? 爲主乎滅夏陽也. 夏陽者, 虞、虢之塞邑也. 滅夏陽, 而虞、虢舉矣. 虞之爲主乎滅夏陽, 何也?

18) 《左傳》과 《公羊傳》을 보면 우나라가 망한 것은 僖公 5년의 일이다.

를 사신으로 도착하였다. 제나라에서 이들을 맞이하여 접대하는데, 대머리로 하여금 대머리인 계손행보의 수레를 몰게 하였고, 애꾸눈으로 애꾸눈인 극극, 절름발이로 절름발이인 손양부, 곱사등이로 곱사등이인 공자 수의 수레를 몰게 하였다.

이때 제나라 임금의 생모가 대 위에서 있다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웃었는데 이 소리를 네 명의 사신이 들었고 불쾌해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서려문 근처에서 선채로 대화를 나누는데 한참을 지나도 끝나지 않았다. 제나라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듣고 말했다. “제나라의 환난이 반드시 이로부터 비롯될 것이다.”¹⁹⁾

이 故事는 전반의 장면묘사가 탁월하여 독자들은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뒤이은 웃음소리와 사신들의 치욕감까지도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듯하다. 그런데 劉知幾는 《史通》에서 말이 너무 많다고 비평하였다.²⁰⁾ 그의 의견대로라면 네 사람의 신체 결함을 서술한 뒤 “제나라에서는 각기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맞이하게 하였다”로 고쳐진다. 일견할 때는 간결한 듯하지만, 시각적 효과도 사라지고, 문장의 맛도 사라진다. 이것은 劉知幾의 千慮一失이다. 《公羊傳》과 대비해 보아도 《穀梁傳》의 문장이 탁월함을 알 수 있다.

진나라 극극과 노나라 장손허가 동시에 제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소나라의 동질자는 제나라 임금의 모친이다. 동질자가 널을 뛰면서 손님을 엿보았다. 손님은 애꾸눈도 있었고 절름발이도 있었다. 이에 그녀는 절름발이를 시켜 절름발이를 마중하게 하고 애꾸눈을 시켜 애꾸눈을 마중하게 하였다. 두 대부가 제나라 임금과 회견을 마치고 나가 서로 문에 바짝 붙어 이야기를 했고 한참을 지나서야 떠났다. 제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나라에 화가 생기는 것이 반드시 여기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²¹⁾

19) 《穀梁傳》成公 元年：冬，十月，季孫行父禿，晉郤克眇，衛孫良夫跛，曹公子手僂，同時而聘於齊。齊使禿者御禿者，使眇者御眇者，使跛者御跛者，使僂者御僂者。蕭同姪子處臺上而笑之。聞於客，客不說而去，相與立胥聞而語，移日不解。齊人有知之者曰：“齊之患必自此始矣！”

20) 劉知幾，《史通·敘事》：克眇，季孫行父禿，孫良夫跛，齊使跛者逆《穀梁》作“御”，下同。跛者，禿者逆禿者，眇者逆眇者。蓋宜除“跛者”已下句，舊作“字”，誤。但云“各以其類逆”。舊多“者”字，必事加再述，則於文殊費，此為煩句也。

21) 《公羊傳》成公 2年：晉郤克與臧孫許同時而聘於齊。蕭同姪子者，齊君之母也。踊於楮而窺客，則客或跛或眇，於是使跛者逆跛者，使眇者逆眇者。二大夫出，相與踦聞而語，移日然後相去。齊人皆曰：“患之起，必自此始。”

우선 동질자의 출현과 행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하고, 《公羊傳》은 누가 절름발이이고 누가 애꾸눈인지, 두 사람 밖에 없는데도 분명치 못하고 깔끔하지가 않다. 누가 보더라도 《穀梁傳》보다 한 수 아래다. 의외로 이 故事는 《左傳》의 처리가 제일 凡庸하다. 왜냐하면 成公 2년 제나라를 공격한 나라는 분명 노, 진, 위, 조 4개 국인데 참전이유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²²⁾ 《春秋》를 보면 이 故事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1. 成公 元年 겨울, 시월
2. 成公 二年 봄, 제나라 임금이 우리 노나라 북변을 쳤다.
3. 成公 二年 여름, 사월, 병술일. 위나라 손량부가 군대를 지휘해 제나라 신축에서 싸웠다. 위나라가 대패했다
4. 成公 二年 유월, 계유일, 노나라 계손행보, 장손허, 숙손교여, 공손영제가 군대를 거느리고 쫓나라 극극, 衛나라 손량부, 曹나라 공지수와 연합하여 제나라 임금과 鞍에서 싸웠다. 제나라가 대패했다.²³⁾

원칙대로라면 《穀梁傳》은 經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1의 경우, 겨울 시월의 경우는 굳이 해설을 할 것이 없다. 春秋筆法에 의하면 별다른 사건이 없더라도 각 계절의 시작은 반드시 적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겨울의 시작인 10월을 명기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故事는 1번 經文아래서 출현한다. 이른바 伏筆, 伏線이다. 네 나라 사신이 등장하는 故事가 없으면 2,3,4의 經

22) 《左傳》: 魯宣公 17년 봄, 진나라 임금이 극극에게 사신으로 제나라 경공의 회맹 참여를 요구하게 했다. 이때 제나라 경공이 유막을 친 뒤 여인들에게 보게 했다. 당상에 오르는 극극의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방안에서 대소했다. 이에 극극이 대로하여 나와서는 이같이 맹서했다. “이 치욕을 갚지 않고는 황하를 건널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먼저 귀국하면서 수하인 난경려에게 제나라에 머물며 명을 기다리라 하며 말했다. “제나라에 앙갚음 하는 건을 이루지 못하면 너에게 다시 명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극극은 귀국하자마자 제나라를 공격하자고 요청했지만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春, 晉侯使郤克徵會於齊. 齊頃公帷婦人, 使觀之. 郤子登, 婦人笑於房. 獻子怒, 出而誓曰: “所不此報, 無能涉河!” 獻子先歸, 使樂京廬待命於齊, 曰: “不得齊事, 無復命矣.” 郤子至, 請伐齊, 晉侯弗許.)

23) 1. 成公 元年: 冬, 十月 2. 成公 二年, 春, 齊侯伐我北鄙. 3. 成公 二年, 夏, 四月, 丙戌, 衛孫良夫帥師, 及齊師戰於新築, 衛師敗績. 4. 成公 二年, 六月, 癸酉, 季孫行父, 臧孫許, 叔孫僑如, 公孫嬰齊, 帥師會晉郤克, 衛孫良夫, 曹公子手, 及齊侯戰於鞍, 齊師敗績. 인용한 春秋經의 순서는 중간에 다른 기사의 삽입 없이 연속된 것이다.

文에서 왜 약국 위나라가 제나라 무모한 공격을 하고 깨지는지, 그리고 곧이어 다시 위나라에 세 나라가 더 가담하여 제나라를 격파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게다가 經에 공격의 主將들을 왜 그리 자세히 적시했는지 의도를 짐작하기가 어렵다. 《穀梁傳》은 “노나라의 계손행보는 대머리였고 진나라의 극극은 애꾸눈이었으며 위나라의 손양부는 절름발이였고 조나라의 공자 수는 굽사등이었다”로 시작되는 故事를 채택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經文의 속사정을 해설해내고 있다. 經文의 내막을 문학적으로 설명해내어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방법을 취해 《穀梁傳》의 해설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편도 《穀梁傳》이 《公羊傳》이나 《左傳》의 해당 故事보다 예술성은 물론, 解經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돋보이는 일례이다.

【故事3】

초나라 靈王이 사람을 시켜 제후의 군중에 慶封을 끌고 가게 한 뒤 호령했다. “제나라 경봉처럼 자기 임금을 시해한 자가 있는가?” 그 순간 경봉이 나섰다. “잠깐 멈추시오! 나도 한 마디 하리다” 그리고 말했다. “초나라 공자 위치럼 그 형의 아들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된 자가 있는가!” 군중의 모든 이가 박장대소 하였다.²⁴⁾

본래 이 故事는 春秋經의 昭公 4년 “가을 7월, 楚나라 임금이 蔡나라 임금, 陳나라 임금, 許나라 임금, 頓의 임금, 胡의 임금, 沈의 임금, 淮夷와 함께 吳나라를 치고, 齊나라 慶封을 잡아 죽였다”²⁵⁾라는 상당히 무미건조한 한줄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것이다. 게다가 그에 대한 해설로 제시된 故事에도 어떤 배경 설명이 없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단숨에 전후 사정을 감지할 수 있고, 강렬한 패러독스를 느낄 수 있다. 이 故事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한 마디 절규로 서로의 가면을 벗겨버린다. 압축된 문장의 전형이다.

원래 霸者를 꿈꾸던 초 영왕은 弑君의 죄목으로 제나라 경봉을 제후들 앞에서

24) 《穀梁傳》 昭公 4년: 靈王使人以慶封令於軍中曰: “有若齊慶封弑其君者乎?” 慶封曰: “子一息, 我亦且一言, 曰: 有若楚公子圍, 弑其兄之子而代之爲君者乎?” 軍人粲然皆笑.

25) 經: 秋, 七月, 楚子、蔡侯、陳侯、許男、頓子、胡子、沈子、淮夷伐吳. 執齊慶封, 殺之.

참수하고자 했다. 경봉은 제나라 임금을 죽이고 정권을 농단했기에 분명히 난신 적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를 징벌하는 것은 천하의 정의를 바로잡는 행위이며, 패자의 덕목이다. 초 영왕은 이를 과시하고자 군중 앞에서 경봉을 참수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뜻하지 않게도 경봉은 억울하여 소리친다. 초나라 영왕도 임금을 죽이고 자리를 빼앗은 자인데 어찌 나를 닮을 자격이 있는냐는 것이다. 절묘한 행문 구성은 서로 한 마디를 주고받은 것으로 모든 실체를 보여주고, “군중의 모든 이가 박장대소 하였다.”고 매듭지어, 두 과렴치범에 대한 당시인들의 조롱과 경멸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필자는 이 故事의 효용은 또 하나 있다고 본다. 故事의 뒤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붙어있다.

《春秋》가 추구하는 정의는, 높은 이가 낮은 자를 다스리고 어진이가 모자란 자를 다스리는 것이지, 어지러운 자로 어지러운 자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孔子께서 말하길, ‘자신이 추악하면서 다른 사람을 토벌하면 상대는 죽더라도 수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것을 일컫는 것이다.²⁶⁾

위의 맺음말에서, 우리는 慶封의 故事가 《春秋》와 공자의 깊은 뜻을 쉽게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효과를 주는지 알 수 있다. 《穀梁傳》이 문학적 취향에서 故事를 운색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것이 《春秋》를 해설하는데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穀梁傳》이 이런 생동감 넘치는 故事로 설명한 것에 비해 《公羊傳》은 다음같이 말한다.

가을 7월 楚子·蔡侯·陳侯·許男·頓子·胡子·沈子·淮夷가 오나라를 치고, 제나라의 경봉을 잡아 죽였다. 이는 오나라를 친 것인데 제나라 경봉을 잡았다고 말한 것은 왜인가? 제나라를 위해서 죽였다는 것이다. 경봉의 죄는 무엇인가 제나라 임금을 위협하고 제나라를 어지럽힌 것이다.²⁷⁾

26) 《穀梁傳》昭公 4년: 春秋之義, 用貴治賤, 用賢治不肖, 不以亂治亂也. 孔子曰: “懷惡而討, 雖死不服”, 其斯之謂與!

27) 《公羊傳》: 秋, 七月, 楚子、蔡侯、陳侯、許男、頓子、胡子、沈子、淮夷, 伐吳, 執齊慶封, 殺之. 此伐吳也, 其言執齊慶封何? 爲齊誅也. 其爲齊誅奈何? 慶封之罪何? 脅齊君而亂齊國也.

일견하면 《公羊傳》도 春秋經의 기사에 대해 착실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문장이 밋밋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관계 파악에도 요령부득이다. 더욱이 《公羊傳》의 설을 따르면 초 영왕과 그의 이번 행위는 아무 하자 없게 된다. 《春秋》의 大義를 밝히는데 미흡한 것이다. 따라서 《穀梁傳》의 故事는 단순히 두 사람의 추함을 들추고자만 한 것은 아니다. 《春秋》의 뜻을 밝히는데 방점이 있다고 봐야한다.²⁸⁾ 穀梁家들과 公羊家들의 착안점이 다르다는 것이 감지된다.

이상 예시한 세 故事는 모두 탁월한 예술성을 갖고 있으며 지금 읽어도 그 생동감과 줄거리가 감탄할 만한 수준이다. 《穀梁傳》의 故事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는가. 대륙학자 譚家健은 《公羊傳》과 《穀梁傳》의 故事는 단지 經의 뜻을 풀이하기 위하여 보충한 것이기에 故事의 완성도나 생동감이 떨어진다고 분석하였다.²⁹⁾ 작품의 수준에 대한 견해는 각자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더 자

28) 《左傳》의 해당 故事는 《穀梁傳》과 비슷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 昭公 4년: 8월 갑신 일에 전투에 이기고 제나라 경봉을 사로잡아 그의 가족을 모두 죽여 버리려 했다. 경봉을 죽이려 하는데 초거가 말했다. “신이 듣건대 허물이 없는 자라야 남을 죽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봉은 다만 그의 천성이 방자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인데 설마 순순히 처형을 받아들일겠습니까. 기회를 얻어 제후들에게 어떤 말이라도 하게 되면 나쁜 소문만 유포하게 할 뿐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초나라 영왕은 듣지 않고서 경봉에게 도끼를 지워 제후들에게 돌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나라 경봉처럼 자기 나라 임금을 죽이고 어린 임금을 무력하게 하며 그 나라 대부들과 동맹을 맺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자 경봉은 외치기를 “어떤 사람이든지 초나라 공왕의 서자위가 그의 임금과 형의 아들 균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어 제후들과 맹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으므로 영왕은 경봉을 속히 죽이게 했다. (八月甲申, 克之, 執齊慶封, 而盡滅其族. 將戮慶封, 椒舉曰: “臣聞無瑕者可以戮人. 慶封唯逆命, 是以在此, 其肯從於戮乎? 播於諸侯, 焉用之?” 王弗聽, 負之斧鉞, 以徇於諸侯, 使言曰, “無或如齊慶封弑其君、弱其孤以盟其大夫!” 慶封曰, “無或如楚共王之庶子圍, 弑其君兄之子麇而代之, 以盟諸侯!” 王使速殺之.) 여기서 椒舉의 발언이 공자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것은 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엇비슷하지만, 그 발언자의 歸屬에 대해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29) 상계문, 적요: 通過《穀梁傳》十五則敘事文字與《左傳》, 《公羊傳》同題故事逐一比較可以發現, 有穀梁氏優於左氏、公羊氏者, 有三家各有千秋者, 有穀梁氏不如二氏者. 穀梁氏多數故事不如左氏, 少數互有短長. 穀梁氏敘事與公羊氏相差無幾, 出現上述差異的原因在於, 穀梁氏、公羊氏是經學家, 重在解釋《春秋》經義, 故事只是爲釋義的補充而已, 因而忽視敘事的完整性和生動性. 左氏是史學家兼史傳文學家, 長於敘事, 重視細節的真實性和情節的完整性, 解釋《春秋》經義只是偶爾爲之.

세히 살펴야 할 듯하다. 《穀梁傳》에서 故事는 편수의 다과나 편폭의 參差에 관계 없이 《春秋》를 해설하는 불가결한 구성요소이다. 결코 보충적 요소도 아니고, 원칙 없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본다. 동시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들이 한결같은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소개된 《穀梁傳》의 故事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의 방향과 전개는 늘 개인의 됄됨이, 특히 지배층의 인품이나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지도자의 식견이 역사의 방향을 틀기도 했고, 혹은 지배층의 경솔한 행동이 전쟁을 부르기도 한다. 혹은 옳게 보이는 행동도 행위자 자신이 덕이 없으면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본고에서 소개하지 못한 여타의 《穀梁傳》 故事들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세계관을 담아내고 있다. 결국 마음가짐, 사람의 됄됨이가 역사의 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穀梁傳》의 故事는 經을 해설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선택에도 의식적인 작위가 있다. 따라서 故事는 穀梁家の 세계관을 투사한 반영물이다. 필자는 '正人心'이 그들 학파의 이상이자 가치관이며 《穀梁傳》의 故事에는 그것이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Ⅲ. 故事의 歸屬 문제 검토

이상에서 보았듯이 《穀梁傳》의 故事는 經을 풀이하는 해설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穀梁傳》뿐 아니라 《公羊傳》과 《左傳》에도 故事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필자는 이 故事들을 '經說'로 본다. 위 2장에서 제시한대로 과연 예시한 故事들이 빠진다면 《穀梁傳》은 문장의 구성이 완성되고 經에 대한 해설의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 독자들은 《穀梁傳》의 설명에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살펴보았듯이 그 故事들은 필수 불가결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으며, 여담으로 편집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公羊傳》과 《左傳》에 나오는 무수한 故事들의 성격도 짐작할 수 있다. 그것들도 역시 각 학파들이 經을 해설하는 중요한 說로서 채택되어 텍스트화 되었다는 것이다. 經說의 '說'이란 經을 풀이하는 해설의 문체 혹은 장르를 지칭하는 것이다. 漢代에는 '傳'과 '說'이 '경전을 풀이한 책'이라는 의미로 통용되었음을 《漢書》에서 볼 수 있다.

獻王이 구한 책들은 모두 古文으로 된 先秦의 舊書로 《周官》, 《尚書》, 《禮》, 《禮記》, 《孟子》, 《老子》부류이며, 모두 《經》, 《傳》, 《說》, 《記》로 七十子의 제자들이 논술한 것이다.³⁰⁾

司馬遷도 孔安國에게 배웠던 까닭으로 그의 책에 실린 《堯典》, 《禹貢》, 《洪範》, 《微子》, 《金縢》의 여러 글에는 古文學과의 說이 많다.³¹⁾

成帝때, 劉向이 校書하면서, 《易說》을 따져보니 여러 易家の 說이 모두 田何, 楊叔, 丁將軍을 따라서 큰 뜻이 대략 비슷했다. 오직 京氏만이 다른데 焦延壽와 둘이서만 隱士의 說을 얻어서 孟氏에게 나왔다고 말했지만 서로 같지 않았다.³²⁾

이상의 기록에서 漢代에 여러 ‘說’들이 유행하였고 문자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說’은 즉 텍스트의 형태로 존재했다. 《漢書·藝文志·六藝略》에서 보이는 經에 대한 說 종류의 서적은 다음 같다.

易: 《略說》

尚書: 《歐陽說義》, 《禮中庸說》, 《明堂陰陽說》

詩: 《魯說》, 《韓說》

孝經: 《長孫氏說》, 《江氏說》, 《翼氏說》, 《后氏說》, 《安昌侯說》, 《說》

論語: 《齊說》, 《魯夏侯說》, 《魯安昌侯說》, 《魯王駿說》, 《燕傳說》

《藝文志》 목록을 보면 당시 ‘說’체 텍스트가 상당히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藝文志》에는 老子에도 《老子傅氏經說》, 《老子徐氏經說》, 《說老子》의 세 종류의 ‘說’이 보인다. 이를 통해 經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진 문헌에는 ‘說’이라는 해설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說’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은 모두 일실되어 구체적 모습을 알 수 없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說’의 흔적을 탐색해 보았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韓非子》의 〈說林〉과 〈儲說〉 등의 8편이라고 생각한다.³³⁾ 편명에 나타나는 ‘說’의 실체는 무엇인가. 《韓非子》를 읽어보면 그 說이라는

30) 《漢書·景十三王傳》: 獻王所得書皆古文先秦舊書, 《周官》, 《尚書》, 《禮》, 《禮記》, 《孟子》, 《老子》之屬, 皆《經》, 《傳》, 《說》, 《記》, 七十子之徒所論.

31) 《漢書·儒林傳》: 司馬遷亦從安國問故. 遷書載《堯典》, 《禹貢》, 《洪範》, 《微子》, 《金縢》諸篇, 多古文說.

32) 《漢書·儒林傳》: 至成帝時, 劉向校書, 考《易說》, 以爲諸易家說皆祖田何、楊叔、丁將軍, 大誼略同, 唯京氏爲異, 黨焦延壽獨得隱士之說, 託之孟氏, 不相與同.

33) 〈說林上〉, 〈說林下〉, 〈內儲說上〉, 〈內儲說下〉, 〈外儲說左上〉, 〈外儲說左下〉, 〈外儲

것은 歷史故事와 民間傳聞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韓非는 그 안에 담긴 수많은 故事를 ‘說’이라는 문체 또는 장르로 명명하였으며 그리고 그러한 說을 모았다는 의미에서 ‘林’과 ‘儲’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물론 이런 故事들 즉 ‘說’은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韓非의 이론이나 학설을 증명하는 전거로 활용된다. 특히〈儲說〉은 필자가 말하는 經과 說로 구성된 대표적 사례이다. 經과 이야기인 故事, 즉 說로 구성되어서, 經은 개요나 원칙을 제시하고 說은 그것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故事로 구성되어 있다. 즉 經과 說의 관계는 원칙이나 강령과 그에 상응하는 해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기실 이것은 先秦 학술계의 일상적인 현상이었다.³⁴⁾ 《韓非子》만 그런 것이 아니다. 《墨子》의 경우는 〈經說〉이라는 편이 있다. 이에 대해 梁啓超는 이렇게 말했다.

古書는 죽간에 새겼기 때문에 傳寫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므로 대개 저술자의 문장은 모두 매우 간략했다. 《老子》는 5천자 정도이고, 《墨經》은 6천자를 넘지 않는다. 공자가 지은 《春秋》도 의미는 풍성하지만 문자는 간략하다. 그러므로 微言大義라는 것은 모두 말로 전해지는 것이다. 經에 밝고자 한다면 마땅히 經說에서 그 의미를 구해야 한다.³⁵⁾

양계초가 이 원칙을 고수하면서부터 經과 說의 관계가 확정될 수 있었다.³⁶⁾

양계초는 《墨經》을 빌어 經과 說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필자는 이 설명에서 계

說右上), 〈外儲說右下〉

- 34) 한비가 노자를 해설한 〈解老〉, 〈喻老〉도 노자의 함축적인 언어를 故事로 풀이한 편으로 經과 說의 관계와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물론 한비가 《노자》를 해석한 것은, 노자를 위한 노자 해석이 아니라, 《노자》의 의미를 빌어 자신의 사상을 편 것이다. 다음은 〈喻老〉의 한 사례이다. 楚莊王蒞政三年, 無令發, 無政爲也. 右司馬御座而與王隱曰: “有鳥止南方之阜, 三年不翅, 不飛不鳴, 嘿然無聲, 此爲何名?” 王曰: “三年不翅, 將以長羽翼, 不飛不鳴, 將以觀民則. 雖無飛, 飛必沖天, 雖無鳴, 鳴必驚人. 子釋之, 不穀知之矣.” 處半年, 乃自聽政. 所廢者十, 所起者九, 誅大臣五, 舉處士六, 而邦大治. 舉兵誅齊, 敗之徐州, 勝晉於河雍, 合諸侯於宋, 遂霸天下. 莊王不爲小害善, 故有大名不蚤見示, 故有大功. 故曰: “大器晚成, 大音希聲.”
- 35) 梁啓超, 《墨經校釋》, 《飲水室全集》38권: 古書槩於竹簡, 傳寫甚難, 故凡著述者文皆極簡. 老子近五千言, 墨經不逾六千言, 孔子作春秋亦義豐而文約, 而微言大義, 皆在口舌. 欲明經, 當求其義於經說.
- 36) 范耕研, 《墨辯疏證》(商務印書館, 1935년), 6쪽: 自梁氏 篤守此例, 乃能將經與說之關係, 確定而不移.

받 받은 바가 크다. 환언하여 故事와 관련되어 하나 주의할 것은 先秦의 故事는 누구만의 독창이거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비슷한 내용을 가진 故事들이 先秦문헌에 무수히 중첩도 나타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예컨대 《韓非子》에 나오는 무수한 故事는 《戰國策》, 《呂氏春秋》, 《列子》, 《莊子》, 《左傳》 등에 동시에 출현하며 그 내용 또한 단락의 선후 또는 字數의 차이가 있을 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 다만 그 故事들은 해당 학자의 의도에 맞게 조정되어 읽혀지는 것뿐이다. 이렇듯 先秦시기 문헌에는 故事를 가지고 자신 혹은 소속 학파의 의견을 납득시키고자 보충 설명하는 풍조가 만연했다. 따라서 故事가 說의 기능을 했음을 볼 수 있다.³⁷⁾ 그런 故事는 대부분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이 주가 되는 것이 상례였다.

다시 《穀梁傳》故事와 春秋學의 문제를 살펴보자. 《藝文志》에는 春秋類 서적이 열거되어 있다. 說로 명명한 가진 책은 안 보이지만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左氏微》, 《鐸氏微》(楚太傅 鐸椒 著), 《張氏微》, 《虞氏微傳》(趙相 虞卿 著), 《公羊外傳》, 《穀梁外傳》, 《公羊雜記》, 《公羊顏氏記》이다. 이들의 원모는 알 수 없지만 《史記》에 그 단서가 있다.

孔門 70명의 제자들은 스승의 주장을 언설로 전수하였는데 거기에는 비평, 권고, 찬양, 은휘, 힐난, 폄훼 등의 말들이 있어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노나라의 군자 左丘明은 제자들이 각각 다른 관점으로 제각기 주관에 집착하여 그 진의를 잃는 것을 염려하였다. 그래서 그는 공자의 역사 기록에 연유하여 그 말을 상세하게 논술하여 《左氏春秋》를 지었다. 鐸椒는 楚나라 威王의 스승인데 위왕이 《春秋》를 전부 열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의 기록을 채취하여 마침내 40장을 지어 《鐸氏微》라고 하였다. 조나라 효성왕 때 재상 우경은 위로는 《春秋》에서 채취하고 아래로는 근세의 정세를 관찰하여 8편을 지어 《虞氏春秋》라고 하였다. 여불위는 진나라 장양왕의 재상인데, 그도 상고시대를 통찰하고 《春秋》를 정리하여 6국의 사적을 집성하였는데, 〈팔람〉, 〈육론〉, 〈십이기〉로 편찬하여 《呂氏春秋》라고 하였다. 그리고 순자, 맹자, 공손고, 한비 같은 자들은 왕왕 각자 《春秋》의 뜻을 받아들여 저작하였으므로, 이루 다 예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³⁸⁾

37) 이런 故事는 혹은 우언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歷史 故事에만 한정시킨 것이다.

38) 〈十二諸侯年表序〉: 七十子之徒口受其傳指, 爲有所刺譏褒諱挹損之文辭不可以書見也. 魯君子左丘明懼弟子人人異端, 各安其意, 失其真, 故因孔子史記具論其語, 成左氏春秋. 鐸椒爲楚威王傳, 爲王不能盡觀春秋, 采取成敗, 卒四十四章, 爲鐸氏微. 趙孝

이상을 보면, 공자는 《春秋》의 뜻을 구술로 전했는데, 弟子들이 감히 문자화하지 못했다. 左氏가 이것을 문서화하였고, 그 후 각 지역에서 《春秋》해설서가 출현하였다. 鐸椒의 《鐸氏微》, 虞卿은 《虞氏春秋》가 나왔고 그 후 呂不韋·荀卿·孟子·公孫固·韓非같은 사람들도 春秋의 문장을 인용하여 책을 지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저작은 이루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藝文志·春秋類》에 기록된 책들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三傳 외에도 많은 說들이 존재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왜 說이 나오는가. 春秋經 자체는 극히 간단하여 해설이 없이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康有爲도 이 점을 간과하였다.

모든 典籍에서 詩·書를 인용할 때는 經文을 인용하는데, 유독 《春秋》만은 漢인들이 칭하는 바가 모두 《春秋》의 義理만을 인용하였고, 經文을 인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古今학자들에게 첫째가는 매우 괴이한 일이다. 그런데 2천년 동안 주의하지 않았다. …… 대개 《春秋》의 뜻은 經文에 있지 않고 口說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³⁹⁾

《春秋》를 인용하되 이른바 經文을 인용하지 않는 현상, 康有爲의 의문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康有爲의 답은 바로 《春秋》의 義理는 經文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口說로 전해진다는 것이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春秋의 세 학파가 今古文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經文 자체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그것도 주로 음이 비슷한 글자를 서로 다르게 기록한 것에 집중될 뿐, 내용이 판이한 것은 없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三傳의 차이는 해설이다. 즉 經은 하나인데 그것을 전수하는 학파와 스승들의 說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학파의 차이는 說에서 판별된다. 따라서 《穀梁傳》의 故事도 穀梁家 학설의 주요 구성성분이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타 학파와의 차별성을 상징하는 표지이다.

《藝文志》春秋類에 ‘說’로 명명한 문헌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三傳이 그 說, 즉

成王時，其相虞卿上采春秋，下觀近勢，亦著八篇，爲虞氏春秋。呂不韋者，秦莊襄王相，亦上觀尚古，刪拾春秋，集六國時事，以爲八覽六論十二紀，爲呂氏春秋。及如荀卿孟子公孫固韓非之徒，各往往摭春秋之文以著書，不可勝紀。

39) 康有爲, 〈春秋口說〉, 《春秋董氏學》(中華書局, 1990), 95쪽: 凡傳記稱引詩書, 皆引經文, 獨至春秋, 則漢人所稱, 皆引春秋之義, 不引經文. 此是古今學者一非常怪事, 二千年來未嘗留意. 蓋春秋之義, 不在經文, 而在口說.

故事들을 대다수 포괄 수렴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三傳에 보이는 그 수많은 說들을 보면 사실 당시의 說들은 다 취합해 놓은 것이 아닌가 보이기도 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公羊外傳》, 《穀梁外傳》, 《公羊雜記》, 《公羊顏氏記》 등의 문헌명으로 보아 여전히 학자들은 자신만의 '春秋說'을 생산해 낸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外傳'이라는 명칭은 시사점이 크다. 동시대에 나온 《韓詩外傳》의 무수한 故事들을 떠올리면, 《公羊外傳》, 《穀梁外傳》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아니었을까 추측한다.

IV. 結語

본고는 《穀梁傳》 故事 분석을 통해, 그 역할과 의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穀梁傳》에 실린 故事는 문학적으로도 주목할 부분이며, 동시에 타 학파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穀梁家 師說의 일부라고 판단하였다. 《穀梁傳》 故事는 先秦부터 유래한 '說'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타 학파와 마찬가지로 이 故事는 분명히 학설의 일부로 계승되었으며, 결코 우연히 채록되거나 보충적 차원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다. 따라서 故事들은 일관된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필자는 가급적 기존 연구방향이나 성과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다만 傳과 說의 계통 정리 및 그와 연계된 故事의 궤적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 등은 후속 연구에서 더 밝히고자 한다.

【參考文獻】

- 范寧集解 楊士勛疏, 《春秋穀梁傳注疏》十三經注疏本 中華書局, 北京, 1980.
 杜預集解, 孔穎達正義, 《春秋左傳注疏》十三經注疏本 中華書局, 北京, 1980.
 何休解詁 徐彥疏, 《春秋公羊傳注疏》十三經注疏本 中華書局, 北京, 1980.
 鐘文丞, 《春秋穀梁經傳補注》中華書局, 北京, 1996.
 司馬遷, 《史記》, 中華書局, 北京, 1982.
 班固, 《漢書》, 中華書局, 北京, 1994.
 陸賈, 《新語》, 中華書局, 北京, 1997.

- 康有爲,《春秋董氏學》,中華書局,北京,1990.
- 梁啓超,《墨經校釋》,飲冰室專集本,中華書局,上海,1936.
- 余嘉錫,《四庫提要辨證》,中華書局,北京,2007.
- 楊伯峻,《經書淺談》,中華書局,北京,1984.
- 金德建,〈瑕丘江公作穀梁傳的推測〉,《陝西省社會科學院》3기, 1957.
- 譚家健,〈穀梁傳敘事比論〉,《文史哲》4기, 2012.
- 楊德春,〈論春秋穀梁傳的文學剪裁〉,《河北北方學院學報》5기, 2011.
- 黃堯坤,〈論穀梁文〉,《北京師範大學學報》12기, 1987.
- 簡逸光,《公羊傳穀梁傳比較研究》,臺灣佛光大學 博士論文, 2008.
- 拙稿,〈곡량전과 공양전의 관계 재론〉,《中國語文論譯叢刊》, 24집, 2009.

【中文提要】

春秋穀梁傳是春秋三傳之一。是一部解釋春秋經義的著作。穀梁傳是經過了漫長的口頭流傳增刪修訂的過程，至於作者究竟是誰已無可考，師承關係也難以盡知。但就成書時期而論，從現有記載來看穀梁傳大約成書於漢初，絕非晚於公羊傳。拙文試探穀梁故事。穀梁故事雖小，爲了闡明經義，使學者易於掌握，發揮一些精簡之文，比公羊左氏別有清新氣象，可謂各有千秋。愚案穀梁故事源於先秦兩漢經說。經說與經傳其實一也。皆服務於經義。穀梁故事以正人心爲本，可見穀梁故事是借事明義的經說之一。

【主題語】

故事, 經, 說, 穀梁傳, 春秋

투고일: 2013. 1. 14 / 심사일: 2013. 1. 20~2. 5 / 게재확정일: 2013. 2. 10